



닷컴기업, 상표출원 비상

온라인 사업에 주력해온 인터넷기업들이 새로운 수익원을 찾아 오프라인 사업에 잇따라 진출하면서 상표출원에 비상이 걸렸다.

도메인은 선점했다더라도 상표등록 시점이 뒤질 경우 상표권 분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온라인에서 아무리 인지도 높은 도메인을 사용하고 있어도 상표권 분쟁에 휘말리면 도메인과 같은 상표로 오프라인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

지난해 한국인터넷정보센터(www.nic.or.kr)에 등록된 'co.kr'로 끝나는도메인건수는 29만3512건에 달하지만 특허청에 출원된 상표건수는 11만건에 불과하다. 도메인 등록자가 상표권 관리에 소홀한 현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오프라인 사업을 하려면 상표부터 출원하라

동창찾기 사이트 아이러브스쿨(www.iloveschool.co.kr)은 음식물제공업(상품분류 42류)에서 '모교사랑'이나 'iloveschool'을 사용할 수 없다. 이미 다른 벤처기업이 지난해 5월 해당 업종에 상표를 먼저 출원했기 때문이다.

상표를 먼저 출원한 벤처기업은 아이러브스쿨측에 회원들의 모임장소를제공하는 오프라인 사업을 함께 진행하자고 제의했을 정도다.

아이러브스쿨은 상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온라인 서비스를 시작한 지 1년이 지난 지난해 9월께 다른 업종에 대한 상표출원을 마쳤다.

하지만 음식물제공업에 진출하려면 다른 업체와 협의를 거쳐야 할 처지다. 이에 반해 도메인과 상표권을 연계해 오프라인 사업영역을 개척하는닷컴기업도 있다.

인터넷 허브사이트 인티즌(www.intizen.com)은 신사복 전문업체 캠브리지와 손잡고 이달 말 20~30대 남성을 겨냥한 신사복 '인티즌'을 출시한다.

'인티즌'이란 상표를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상표권을 출원한 덕분이다. 김진우 인티즌 부사장은 "캠브리지에 상표 사용권을 주고 전자상거래 사업을

공동 진행키로 했다"며 "기업이미지 제고는 물론 새로운 수익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외에 야후코리아(www.yahoo.co.kr)가 야후 브랜드를 사용해 생활용품을 개발중이며 라이코스코리아(www.lycos.co.kr)는 음반 판매사업에 진출했다.

■상표출원 요청 붐물

온라인 상표출원 기업인 아이니드브랜드(www.ineedbrand.com)는 지난달사업을 시작한 후 상표출원 요청이 쇄도해 전 직원이 야간근무를 할 정도다.

김세진 아이니드브랜드 사장은 "오프라인 연계사업이 닷컴기업의 수익모델로 부상하면서 도메인과 연계한 상표출원 의뢰가 폭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이 회사는 오프라인에서 자사 브랜드로 귀금속 판매사업을 계획인 인터넷 쇼핑몰 A사, 자사 도메인을 이용해 티셔츠 판매를 준비중인 B사 상표출원을 도와주고 있다.

또 음식소개 사이트를 운영중인 D사는 오프라인 식당을 열기 위해 상표등록을 요청해 둔 상태다. 아이니드브랜드측은 "상표권은 도메인보다 더강력한 법률적 효과를 가진다"며 "자사의 사업방향에 맞는 업종에 대해상표출원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인터넷 기업의 경우 통신업(38류)이나 기업경영·광고업(35류)에 대한 상표출원은 물론 42류에 달하는 분야 중에서 자사와 연관된 전 분야에 대한 상표출원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또 자사 상표권 사용에 대한 감시활동과 법적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매일경제

ASIC핵심기술, IP(지적재산권)사업화 열기

비메모리반도체용 지적재산권(IP)을 전문적으로 개발, 공급하는 IP 라이선스 사업이 활기를 띠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에이디칩스·자람테크놀로지·웨이투텍·앤스랩·위즈네트 등 중소 ASIC 업체들은 각기 자사가 보유하고 있는 반도체 핵심 코어를 IP로 가공, 국내외 업체들을 대상으로 공급에 나서고 있다.

에이디칩스(www.adc.co.kr 대표 권기홍)는 독자 개발한 16 및 32비트 복합명령형컴퓨팅(EISC: Extended Instruction Set Computer) 방식 마이크로프로세서 코어의 해외 공급 비중을 늘리기 위해 지난달 중국 사무소를 설립, 이 지역 가전업체 및 반도체 설계 전문 업체들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마케팅에 돌입했다.

연말까지는 미국에도 현지법인을 설립, 사업대상을 미주와 유럽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권기홍 사장은 “오는 3·4분기까지 64비트급 EISC 코어의 1차 개발을 완료하고 검증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히고, “IP 공급 사업으로 연말까지 400만 달러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신호처리기(DSP) 코어를 개발, 지난해 대만의 선플러스와 공급 라이선스를 맺은 자람테크놀로지(www.zaram.co.kr 대표 이현)는 대만의 반도체 수탁생산(파운드리) 업체인 TSMC, 네덜란드 필립스 등 세계적인 업체들과 코어 라이선스 체결 협상을 진행중이다.

이 회사는 또한 최근 개발한 16비트 변복조기(CODEC) 코어에 대해서도 관련 업체들과의 라이선스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유무선 통신용 솔루션을 개발하는 웨이투텍(www.waytotec.com 대표 류근장)은 지난 1월 이동기 전송모드(ATM)용 SAR(Segmentation And Rearrangement) 블록을 IP화해 국내 업체와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등 핵심 반도체의 IP화 작업에도 나서고 있다.

류근장 사장은 “무선 통신용 반도체의 IP 사업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20% 선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IP 개발 전문업체 앤스랩(www.anslab.co.kr 대표 국일호)은 자회사 ‘코텍실’을 설립, 국내 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IP 중개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이 회사는 대학 등에서 개발된 IP를 상용화가 가능하도록 보완, 이를 필요로 하는 국내 업체들에 연결해 줄 방침이다.

국일호 사장은 “국내 시스템 업체들을 중심으로 IP에 대한 수요는 많지만, 주로 해외에서 조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하고, “상용화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사장된 IP를 발굴·상용화해 수요자들에게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PC 없이도 고속으로 인터넷에 직접 접속할 수 있게 해주는 TCP/IP(Transmission Control Protocol/Internet Protocol) 칩을 개발한 위즈네트(www.wiznet.co.kr 대표 김철수)도 미국 현지 법인을 중심으로 이 칩의 핵심 IP를 외부 기업들에 공급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출처 디지털타임스

건설분야 실용신안 출원 급증

건설분야의 장기적인 침체에도 불구하고 지난 97년 이후 이 분야의 실용신안 출원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에 따르면 작년 한해 동안 건설분야 실용신안 출원건수는 지난 97년 2천351건에서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직후인 98년 2천162건으로 줄었다가 99년 3천443건, 작년 5천130건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전체 산업 대비 건설분야 실용신안 출원건수 비율도 지난 97년 5.1%에서 98년 7.5%, 99년 11.2%, 작년 13.8% 등으로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이처럼 실용신안 출원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은 실용신안권을 취득하면 각종 건설공사의 입찰과 우수제품 선정에서 낙찰에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는데다 지난 99년 7월부터 ‘실용신안 선등록제’가 시행



되면서 출원 후 등록까지 걸리는 기간이 기존 2~3년에서 3개월 정도로 크게 단축됐기 때문에 풀이된다.

특허청 관계자는 “실용신안권은 개발된 건설기술을 권리화함으로써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데다 건설시장의 불황을 해소하는 활력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 연합뉴스

미국내 비즈니스 모델 특허 인정감소 추세

미국 인터넷 산업 침체와 함께 그 동안 급부상했던 비즈니스 모델 특허 허가건수가 점차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미국 특허청의 비즈니스 모델 특허 허가 비율이 지난해 1/4분기 56%에서 4/4분기에는 36% 수준으로 떨어졌다.

비즈니스 모델 특허 승인 비율이 낮아지고 있는 것은 우선 신청모델 자체가 특허를 받을 만큼 참신한 경우가 드물기 때문이다. 또한 최근 아마존닷컴의 원클릭 쇼핑을 둘러싼 법정공방도 BM 특허 감소 추세에 한 몫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마존 같은 회사의 특허권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에 직면한 미국 특허청이 비즈니스 모델 특허 심사를 예 전보다 까다롭게 적용하기 때문이다.

봉이 김선달 처럼 사업 아이디어 하나로 때돈을 벌겠다던 미국인들의 집착도 인터넷 버블의 붕괴와 더불어 이제는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출처 inews24

인터넷 저작권 상담 작년비해 부쩍 늘어

인터넷 저작권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며 저작권 관련

분쟁과 상담이 급증하고 있다. 저작권관련 분쟁을 상담하고 중재를 알선하는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www.copyright.or.kr)에 따르면 인터넷저작권관련 조정을 신청해온 건수가 지난해와 올해 들어 급격히 늘고 있다.

저작권 심의조정위원회의 조정은 실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사건 당사자들이 소송을 하기 전 원활한 해결을 위해 정부산하기관에 요청하는 준사법적 화해절차이다.

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지난 98년과 99년에는 인터넷저작권 관련 조정이 각각 1건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5건, 올해에는 1.4분기에만 2건이 발생했다.

올해의 경우 1.4분기 전체 조정건수가 7건임을 감안하면 인터넷 저작권조정이 30%에 육박하는 수치다.

위원회에 인터넷 저작권 관련 상담을 전화로 문의해 오는 사람의 수도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과거 하루 평균 8~9건에 불과했던 인터넷저작권 관련 전화상담이 최근평균 15~20건에 이른다고 한다. 실제 인터넷과 오프라인이 연계된 저작권 상담은 지난 99년 535건에서 지난해 749건으로 크게 늘어났고 올해에는 1000건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1월에는 인터넷저작권 관련 상담이 32건, 2월에는 55건을 기록했다.

최명기 책임연구원은 “최근에는 넵스터와 소리바다와 관련해 무료음악사이트의 저작권 문제를 문의해 오는 사례가 많다”며 “특히 예전과 달리 인터넷 사이트에 있는 자료나 사진을 자신의 사이트에 올리기 전에문의해 오는 사례가 많은 것은 인터넷 저작권에 대한 관심도가 그만큼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출처 매일경제

교수들에게 “자유 발명권” 인정해야

대학에서 이뤄진 우수 연구성과를 관련 산업체에

이전하기 위해서는 교수진의 발명에 대해 예외적으로 '자유 발명'으로 보아 특허권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 삼성동 COEX에서 열린 '대학교수 창업·기술이전 세미나'에서 이준식 대학산업기술지원단 단장(서울공대 교수)은 "교수(특히 국립대) 스스로 특허권자가 되어 직접 창업하거나 당해 기술을 필요로 하는 기업에 특허권 이전·특허기술실시허락(특허 라이선싱)이 불가능해, 상업화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그는 "교수 개인에 대한 인센티브가 미흡해 기술제안율이 낮고 이에 따라 특허성 있는 실용화기술이 사장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단장은 '산업기술 발전을 위한 기업과 정부에 대한 바람'을 통해 "국내 고급연구인력(박사학위 소지자)의 70% 이상이 대학에 속해 있으나 대부분의 대학이 교수의 발명을 '직무발명'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그 결과 대학 소속 교수 및 연구원들은 인센티브 부족으로 특허출원이 미미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 단장은 대학교수들의 직무발명은 "종업원·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해 발명한 것은 업무범위에 속한다"는 특허법상의 직무발명과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지적했다.

대학교수의 연구결과(성과)는 연구비 지급 또는 특허비용 지급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교수가 되기까지 오랜 기간 사비지출을 통한 교육, 유학, 경험에서 습득한 노하우의 결과물이라는 주장이다.

따라서 그는 "특허법 개정을 통해 대학교수의 직무발명에 대한 자유발명 예외 규정을 뒤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행 특허법상 국립대 교수의 발명은 공무원 직무발명으로 분류되고, 특허권은 국유이므로 특허비용 역시 대학(국가)이 부담하고, 교수에게는 보상금만 지급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자유발명을 인정하게 되면, 교수 개인도 특허비용을 부담할 수 있고, 특허 수익금의 대부분은 교수에게 귀속된다.

이날 세미나에는 62개대학 153명의 대학교수, 83개 교수창업업체가 참가해 우수 창업사례를 발표했으며 이들 회사가 내놓은 우수제품 전시회도 함께 개최된다.

출처 디지털타임스

“소나무, 장미” 상표이름으로 가장 선호

우리나라에서 상표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나무이름은 소나무(860건), 매화나무(335건), 배나무(244건) 등이고 꽃이름은 장미(301건), 무궁화(276건), 코스모스(116건) 등인 것으로 밝혀졌다.

특허청(www.kipo.go.kr)이 해방이후 나무와 꽃이름 관련 한글상표 출원동향을 분석한 결과이다.

80년대까지는 '소나무', '장미'와 같이 주로 나무 또는 꽃이름 자체를 상표로 출원했으나 90년대 이후부터는 '소나무 언덕', '장미빛 인생'과 같이 소비자들에게 인상적인 상표로 구성해 출원하려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

90년대 중반이후부터는 '술아 술아 푸른 술아', '매화 예등걸이 봄철이', '이화에 월백하고', '대추 물 들이는 가을햇살', '꽃을 든 남자' 등의 문학적인 표현도 자주 등장하고 있다. 특히 건강에 관심이 고조되는 사회적인현상을 반영해 '솔잎', '매실' 등 기능성 식품관련 상표출원이 급증하는경향을 보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도 나무 및 꽃이름 관련 상표출원을 많이해 강원도 28건, 충북 6건, 경기 2건, 경북 2건 등을 기록하고 있다.

한편 특허청 관계자는 "나무나 꽃의 품종명칭을 당해 나무나 꽃을 지정상품이나 서비스업으로 해 상표로 출원하면 상표등록이 되지 않으므로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디지털시대에는 이미지상표로

- 우리는 디지털시대에 살고 있다. 정부가 얼마전에 정보고속도로라고 불리는 초고속정보통신망을 전국적으로 구축하여 IT분야에서 미국, 싱가포르 등 몇몇 나라와 같이 세계의 선두주자 대열에 끼이게 되었고, 2000년말 인터넷가입자 수가 4백3십만명으로 인구대비 인터넷보급률은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가 되었다.
-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2000년도 전체 상품류별 출원건수를 기준으로 색채상표는 11,250건, 입체상표는 96건, 색채와 입체가 결합된 상표는 261건이 출원되었으며 1999년 출원건수 대비 색채상표는 16.9%, 색채와 입체가 결합된 상표는 87.8%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상품류별로 살펴보면
 - 색채상표는 서어비스업이 4,683건으로 가장 많고, 기계제품이 1,425건으로 2위를 그 다음이 과자류로서 1,298건이며, - 입체상표는 서어비스업이 19건으로 가장 많고, 과자제품이 16건으로 2위를 그 다음이 기계제품으로서 15건이고,
 - 색채와 입체가 결합된 상표는 서어비스업이 135건으로 가장 많고, 과자제품이 40건으로 2위를 그 다음이 기계제품이 3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 이러한 경향은 새천년을 맞이하여 종래의 단순한 문자나 도형으로 구성된 상표보다는 기존의 상표에 색채 및 입체적 형상을 부가하여 기업의 이미지를 잘 나타낼 수 있는 색채 및 입체상표의 개발에 주력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 이미지상표란, 특정기업의 이미지를 기호, 문자, 도형 또는 입체적으로 형상화한 것 또는 그들의 결합에 색채를 부가한 것으로 정의할 수 있겠다.
- 인터넷과 전자매체의 발달로 전자상거래가 확

대되고 풍족한 물질적 혜택을 누리며 이들을 통한 시각적 매체와 함께 성장해 온 이른바 n세대가 주도하는 21세기에는 이들 주 고객의 취향을 만족시키지 않고서는 어느 기업도 살아 남을 수 없을 것이다.

- 사회가 빠르게 변화되고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홍수속에서 살아가는 n세대들에게는 그들이 필요로 하는 대부분의 정보를 자주 접하는 전자매체를 통하여 얻게 되므로 그것들을 통한 기업홍보가 자기의 상품을 알리는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는 것이다.

- 이에 따라, 제품자체의 품질에 기초하는 명성보다는 자신이 동일시 할 수 있고, 특정이미지를 선호하는 신세대의 취향에 맞는 도형 또는 문자에 좀 더 시각적인 색채 및 입체적 형상을 가미한 이미지 상표의 출원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이러한 시대의 흐름에 따라 각 기업들은 고객의 잠재된 욕구를 일찍 발견하여 새로운 자극을 원하는 고객에게 적시에 원하는 상품을 개발하여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비와 함께 자사상품의 차별화된 특정 이미지를 잠재고객에게 집중적으로 부각시킬 수 있는 이미지 상표의 개발로 타 상품과 이미지를 통한 차별성을 부각시키는 전략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연도별 색채·입체상표 출원현황(상품류별 기준)

(단위:건)

종류	색채상표	입체상표	색채·입체상표	계
연도				
1998년도	2,148	76	62	2,286
1999년도	9,628	139	103	9,870
2000년도	11,250	96	261	11,607
(증가율)	(16.9%)	(Δ30.9%)	(87.8%)	

상품류별 색채·입체상표 출원현황(2000년도)

(단위:건)

	화학품	일반금속	기계	섬유	가구
색채상표	506	215	1,425	811	546
입체상표	6	1	15	7	11
색채· 입체상표	15	1	32	7	6

(단위:건)

	귀금속	악기	종이	과자	고무	서비스업	계
색채상표	422	433	878	1,298	31	4,683	11,250
입체상표	6	11	4	16	0	19	96
색채· 입체상표	5	4	14	40	0	135	261

세계를 향한 김치제조기술

- 88올림픽을 계기로 세계인들에게 선보인 김치는 일본, 미국 등 외국에서 그 우수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음.
- 김치관련산업은 종래 김장김치 위주에서 포장김치 또는 수출용 김치생산으로 전환되고 있음.
- 김치관련 특허출원은 매년 30~50건씩 출원되었으나 국내 생활 패턴의 변화에 따라 최근 150여건으로 급증하였음.
- 김치수출을 위한 김치제조 및 김치유통관련 기술도 최근 5년간 급증하였고 다양화되었음.

□ 세계적 건강식품으로 부각되는 김치

- 김치는 발효식품으로서 각종 유기산과 비타민, 무기질이 화학반응을 일으켜 신선한 맛과 젓산 발효에 의한 상쾌한 맛, 각종 향신료에 의한 독특한 맛, 젓갈류에 의한 감칠 맛 등을 나타냄.
- 영양학적으로 보면 소화흡수를 촉진시키는 식이성 섬유함량이 풍부하고 비타민 C의 함량이 많아 김치 50g은 성인기준 1일 비타민C 필요량

의 1/2이상을 공급할 수 있으며, 상당히 강한 항암작용을 한다고 알려져 있음.

- 지난 88올림픽을 통해 세계적으로 선보인 김치는 최근 육류소비가 많은 식생활문화를 가진 외국 여러 곳에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 특히 일본의 경우 1970년대 이후 식생활에서 동물성단백질이 차지하는 비율이 서양인들과 비슷하게 되면서 성인병 예방을 위한 다이어트 또는 스테미너 식품으로서 김치를 새롭게 인식하게 되어 최근 김치 소비량이 급증하였고 우리나라로부터 수입도 급증하였음(별첨 1).
-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 중국, 동남아 등지에서도 김치는 섬유질과 비타민이 풍부하고 안전한 식품이라는 인식이 점차 확산되고 있음.

□ 김치의 과학화 및 규격화

- 전래된 전통 김치류의 식품적 특성을 이해하고 더욱 우수한 김치를 만들기 위하여 김치맛의 형성과정, 소금 고추 마늘 등 부재료의 역할, 김치 유산균의 특성, 김치의 영양적 특성, 김치 숙성과 보존기술 등에 대한 연구가 학계, 연구계, 각 수출선도 업체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 김치가 세계적 건강식품으로 대두됨에 따라 국내외에서 김치에 대한 표준적인 규격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바,
- 김치의 국내 표준규격으로는 전통식품 표준규격(TO20-1999), KS규격(KSH2169), 식품공전(식품위생법)이 있고,
- 김치의 국제 규격화를 위하여 코덱스(Codex) 회의가 진행되어 최근 한국 김치(Kimchi) 중심으로 사실상 확정됨으로서 김치의 국제규격이 재료, 첨가물, 수분함량, 산도 등에 관해 한국이 제시한 표준이 대부분 채택될 것으로 보임.

〈코덱스(Codex)란〉

Codex는 Codex Alimentarius(food code의 라틴어)의 약어로서 FAO와 WHO가 합동으로 운영



하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Alimentarius Commission)에서 식품의 국제교역 촉진과 소비자의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제정되는 국제식품규격으로서 공산품에 적용되는 ISO(국제표준기구)인증과 같은 형태의 것임. 이 인증을 받으려면 8단계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김치의 경우 이미 7단계가 진행되었고 남은 8단계는 코덱스 총회보고와 추인절차임.

□ 김치산업의 국내외 동향

- 국민 식생활의 서구화 진척으로 국내 김치 소비량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맛별이 가정이 증가하고 국민 식생활의 편의화 진전으로 시간절약과 김치 담그는 번거로움 해소를 위해 공장에서 제조한 김치를 구입하는 가정이 증가하고 있어 공장김치 생산량이 계속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음.
- 국민 1인당 1일 90.8g 수준을 소비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1인당 소비량은 감소추세여서 인구 증가를 감안하더라도 전체소비량은 약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 (92년) 1,526천톤 → (97년) 1,504 → (98년) 1,571 → (2001) 1,543(이하 자료 ; 농수산물유통공사)
- 김치 제조업체는 개인경영에 의존하는 영세·소규모 업체가 대부분으로 단무지 절임식품 등 복합 가공업체가 절반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임.
 - (92년) 160개소 → (94년) 183 → (97년) 459 → (98) 400
 - 공장 생산량(98년) : 450천톤(총 생산량의 약 30%로 추정)
- 김치는 88년 올림픽을 계기로 수출이 급증하여 현재까지 일본을 중심으로 수출이 지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음.
 - (97년) 12,080톤 → (98년) 45,939톤 → (99년) 24,561톤

- 김치 주 수출대상국은 일본으로 대일 수출편중 현상이 지속되고 있음.
 - 대일 수출비중 : (95년) 85.1 % → (96년) 92.7 → (98년) 95.6 → (99년) 97.0

□ 김치관련기술의 특허출원 동향

년도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2000
출원	28	30	49	58	88	62	53	144	163	176	149
건수								(75)	(65)	(108)	(70)

()속의 수치는 김치냉장고 관련 특허출원건수임.
* 2000년 특허출원건수는 11월말 현재임

- 김치 관련 특허출원기술은 김치의 주재료, 보존 기술, 발효숙성기술, 영양가제고, 풍미향상, 포장기술 등으로 대별할 수 있음.
- 김치관련기술은 연간 30~50건씩 출원되어 오다가 1997년부터 150여 건으로 급증하였음.
- 최근 김치관련기술의 특허출원이 급증한 주 요인은 김치의 숙성저장 장치인 김치냉장고에 대한 대기업간의 시장경쟁이 촉발되어 그 출원이 집중되었기 때문임.
- 95년 시장에 첫선을 보인 김치냉장고는 지난해 까지 보급률이 6.7%에 불과했으나 올해는 지난 5년간 판매된 수량 만큼인 100만여대(5500 억 원)가 팔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을 만큼 새로운 가전제품으로 급성장 하는 분야인 바, 만도공조, 삼성전자, LG전자, 대우전자, 동양매직 등의 업체가 극심하게 경쟁하고 있는 분야임.
- 김치냉장고에 대한 KS규격이 2000년 5월 제정 되었음.

□ 김치의 수출증대를 위한 최근 특허출원기술

- 김치의 수출은 농림수산부에서 5대 수출전략상품의 하나로 지정할 정도로 농산품 및 문화상품으로서 중요한 수출품목임.

- 최근 대기업의 수출시장참여가 본격화되어 롯데, (주)두산, 동원, 풀무원, 제일제당 등이 김치의 세계화를 목표로 각축전을 벌이고 있음.
- 수출을 고려한 김치관련기술의 출원동향을 보면,

년도	86 ~ 90	91 ~ 95	96 ~ 2000	계
건수	6	6	21	44
			(12)	

()는 1988년도 출원건수임.

- 지금까지 44건이 출원되었고 김치의 수출이 급신장한 최근 5년간은 출원건수가 3배 이상 증가되었고, 특히 대일본 김치수출이 최고조에 달한 1998년에 출원이 많고 기술내용도 다양화되었음.
- 이들 김치수출관련출원의 기술내용은 양념류의 자극적 맛이 경감된 김치류 5건, 장기유통을 위한 발효억제 또는 저장기술 29건, 대량제조 기술 2건, 제품형태 8건 등으로서 수출시 수송 및 판매기간이 장기화 됨에 따른 유통관련 기술이 많음.
- 1998년을 제외하면 김치수출과 관련된 특허출원 건수에 특별한 증감은 없으나, 지속적으로 출원되는 이들 각각의 기술은 상품화되어 김치수출 증대에 직접 기여하는 경우가 많음.

<예를 들면>

@ 증가집김치로 김치국제화에 앞장서고 있는 (주)두산은 고춧가루 대신에 건조 피망가루를 사용하여 맵지 않은 김치를 개발(특허 93163호, 무취하고 매운맛이 없는 김치의 제조방법)한 바 있고, 최근에는 기존김치와 같이 마늘, 파, 고추 등의 양념을 모두 넣고도 김치 특유의 발효변색을 없애 취식 후 입냄새가 나지 않도록 하고 김치의 저장기간을 5개월까지 획기적으로 연장하는 저발효취 숙성법을 개발하여 외국인의 기호에 맞고 김치수출시 장거리 수송도

가능케 하였음.

@ 글로벌김치프로젝트 를 추진하고 있는 제일제당은 김치의 순간 발효정지기술을 개발(특허117951호, 김치제조방법 및 김치과숙 지연용 첨가제)하여 김치의 유통기한을 6개월로 늘려 김치수출의 걸림돌이었던 유통기한 1주일이라는 난제를 극복하였음.

@ 김치의 과학화를 선도하고 있는 한국식품개발연구원은 초음파를 주기적으로 발진해 주면서 압력을 가해 탄산가스를 넣어주고 적정 시간 가압처리하면서 김치의 산패에 작용하는 미생물을 살균시킴으로써 숙성된 김치를 상온에서도 1개월이상 보존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특허238456호, 김치의 저장성연장 방법)하였음.

@ 인하대 한홍희 교수팀은 김치유산균 중 특이균주를 대량배양하여 이용함(특허출원 제99-8008호, 루코노스톡스트리움IH22균주를 이용하여 제조한 채 김치 및 김치쥬스)으로서 양념류를 모두 쓰기도 매운맛과 신맛이 덜하고 담근지 1년이 지나도 맛이 변하지 않는 김치를 개발하였음.

출처 한국일보

보안업체들, 무료 다운로드 차단기술 개발 박차

인터넷 보안업체들이 웹스터 저작권법위반 판결을 계기로 무료 다운로드를 방지하기 위한 신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비디어스, 이프아카이브, 카피라이트닷넷등 미국 인터넷 보안업체들은 저작권있는 음악과 비디오를 인터넷을 통해 무료로 다운로드받는 행위를 차단시키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고 로스앤젤레스 타임스가 보도했다.

이들이 개발중인 신기술은 비밀리에 거래되는 파일과 네트워크를 통해 무단복제되는 것을 찾아내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일부 보안업체들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들의 도움이 있으면 해적판 파일을 공유하려는 움직임을



사전에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보안업체들은 이번 신기술은 사용자들이 원하는 파일을 합법적인 네트워크에서 다운로드받도록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출처 디지털타임스

에 특허등록했다.

출처 매일경제

외국 발명특허 국내서 무효 판결..대법원

출원당시 기술수준 등 발명특허를 판단하는 기준이 나라별로 다르므로 외국 발명특허를 국내에서 인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재판장 박재윤 대법관)은 이탈리아 제약회사인 파마시아 앤 업존사가 국내 동아제약, 보령제약 등 2개 제약회사를 상대로 낸 '주사제제조 방법 특허 무효심판청구권' 상고심에서 "국내 특허 등록이 무효라는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파마시아 앤 업존사가 국내에 특허등록한 주사제는 외국의 약학 전문문헌을 통해 쉽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이라며 "파마시아사가 국내에 등록한 특허는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발명의 진보성 여부 판단에서 그 출원당시의 기술수준, 대비되는 발명의 유무 등에 따라 나라마다 사정이 다르므로 해당 발명은 외국에서 특허등록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국내에서도 발명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동아제약과 보령제약은 지난 93년 파마시아사가 국내에 특허등록한 주사제 제조방법은 일반적 기술로도 제조할 수 있다며 파마시아사를 상대로 특허 무효심판을 청구했다. 두 회사는 지난 95년과 97년 이 청구권에 대한 1심과 2심에서 파마시아사의 국내 특허등록이 무효라는 판결을 얻어내자 파마시아사는 97년 두 제약회사를 상대로 상고했다.

앞서 파마시아사는 90년대 초반 주사제인 안트라 사이클린 글리코사이드용액에 대한 제조방법을 국내

법무부, 지적재산권 침해에 따른 권리구제 적극지원

앞으로 지적재산권 침해에 따른 권리구제 활성화를 위해 침해사범에 대한 인적사항 등의 정보가 피해자에게 제공된다. 이에 따라 기소된 지적재산권 침해사건 피해자들의 신속한 권리구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법무부(www.moj.go.kr)는 전국 검찰에 지적재산권 침해사범에 대한 단속 강화를 지시하면서 이같은 내용의 피해자 권리 구제방안을 적극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침해사범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는 것은 기소된 사건에 한하며 불구속사건이나 수사중인 사건은 형법 제126조에 따라 여전히 공개가 되지 않는다.

법무부는 또 검찰 인사에 따라 새로 편성된 지적재산권 합동단속반이 피해업체의 고소없이도 정보수집 활동을 전개토록 하고 피해자들의 고소를 통한 처벌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법무부는 특히 올해부터는 지적재산권중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 위반 사범을 중점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법무부는 99년 3월 법무부장관의 지적재산권 침해사범 단속 특별지시가 있는 이후 그 활동을 강화해 왔으며 지난해에는 단속실적이 전년 동기대비 28.2%가 증가한 4만2700여건에 달했다.

"이동 지적재산권" 공동관리

국내 연구기관과 통신장비업체 등이 보유한 지적재산권의 공동관리를 통해 해외업체의 로열티 공세에 공동대응하기 위한 '이동통신 지적재산권 풀

(pool)' 구성이 추진되고 있다.

사단법인 한국이동통신지적재산권협회(www.kmtia.org 회장 김동연)은 열린 회원사 간담회에서 국내 이동통신 지적재산권에 대한 공동관리 및 대응 체제를 마련키로 했으며 현재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등 이동통신 관련 지적재산권 보유기관과 지적재산권 대행 계약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지적재산권 공동관리 체제가 도입되면 국내 연구기관과 업체들이 보유한 지적재산권을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며, 특히 해외 로열티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효율적 방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협회 관계자는 "외국업체의 로열티 공세에 무방비 상태인 국내 중소기업이 국내 기업이나 연구기관이 확보하고 있는 관련 분야의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로열티 협상을 유리하게 이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적재산권 관리비용 절감과 체계적 관리, 동종업체간 공동대응에 따른 대외 협상력 강화도 기대할 수 있다는 것.

협회는 공동관리 체제의 첫 번째 적용 가능한 분야로 'CDMA'를 꼽고 있다.

협회를 통해 국내 중소기업들이 ETRI와 코드분할 다중접속(CDMA) 관련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

결, 이를 퀄컴과의 로열티 협상에 카드로 활용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협회는 지난해 말부터 ETRI와 포괄적인 지적재산권 협력을 추진중으로 이르면 상반기중 계약이 체결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

한 관계자는 "회원사들이 공동으로 요구하는 분야부터 차례로 국내의 주요 연구기관과 회원사들의 지적재산권을 위임받아 나갈 것"이라며 "이는 지적재산권 시대에 효율적인 공동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세금으로 운영해온 국책연구소의 연구 성과물을 중소기업 등 사회에 환원한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밖에 한국이동통신지적재산권협회는 이동통신 특허 지도(PM:Patent Map)와 데이터베이스 작성, 지적재산권 공동출원·등록·이전 시스템 개발, 지적재산권 분쟁 대응 및 해결 시스템 개발 등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 협회는 지난해 8월 텔슨전자, 스탠더드텔레콤, 아이티모바일 등 6개 업체들이 이동통신 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해 공동 대응하고자 설립한 단체로 정보통신부 산하 사단법인으로 등록돼 있다.

출처 디지털타임스

발특2001/56

발
명

국제상표등록 전년대비 14% 증가

국제상표등록이 지난해 전년대비 14%증가,지난 10년동안 최고의 신장률을 기록했다.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에 따르면 2000년 국제상표등록 신규건수는 2만2968건으로 10년만에 두자릿수 성장세를 나타냈다.

국별로는 독일이 6049건으로 가장 많이 등록했다.이어 프랑스, 베네룩스 3국, 스위스등의 순으로 유럽국가들이 상위 10위권을 휩쓸었다.

지난해 3월 상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의정서에 가입한 일본은 144건을 등록했다.

상표등록은 각국별로 출원할 수 있으나 각각의 언어로 출원서를 만들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을 뿐 아니라 심사기간도 많이 걸리는등 단점이 많다.

마드리드의정서의 등록시스템은 1통의 영어원서로만 작성해 WIPO에 제출하면 된다.또 길어도 18개월내에는 등록여부의 결과를 알 수 있다.

이 의정서에 내년 미국의 가입이 실현되면 국제상표등록은 유럽주에서 전세계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출처 매일경제